



제목	이슬람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을유문화사
발행일	2012. 12. 10.
저자	카렌 암스트롱 장병욱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67
ISBN 또는 ISSN	978-8932472003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연구한 책이다. 저자가 볼 때, 이슬람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신의 존재를 찾는 종교다.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여 살아가면서 신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의 정부 정책들과 이슬람 교리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이슬람교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과 현상들에 대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무슬림들은 꾸란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악행을 저지르는 정치 지도자와 외부침입자에 의한 이슬람 사회의 고통을 신앙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슬람 초기를 다루고 있는 1장에서 저자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정통 칼리프시대 그리고 제1차 내전을 소개한다. 2장은 이슬람 발전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는 우마이야 시대와 2차 내전으로 시작하여 압바스 왕조의 칼리프 시대까지를 아우른다. 3장은 이슬람 전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의 확장 그리고 몽골 제국의 이슬람 침공을 다루고 있다. 4장은 이슬람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사파비 제국,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을 다루고 있다. 이 제국들은 이슬람 역사에서 이슬람 3대 제국이라 일컬어진다. 사파비 제국은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삼았으며, 무굴 제국은 팔사파와 수피즘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고, 오스만 제국은 샤리아법을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5장에서는 고뇌하는 이슬람이라는 제목 하에 이슬람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전망을 제시하고 있다.